

한화진 “4대강 보 활용 공업용수, 산업 육성·발전에 직결”

환경장관, SK하이닉스 이천공장 방문
“보, 가뭄과 관련 유용한 국가자산
수위 관리면 더 많은 물 공급 가능”

한화진 환경부장관이 취임 1주년을 맞아 한강 4대강 보를 방문해 보를 산업적으로 적극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 장관은 직전 취임 1주년 기념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전 정부의 4대강 보 해체 결정에 대해 과학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지난 10일 경기도 여주시 여주보와 인근 SK하이닉스 이천공장을 방문해 보 활용 현황을 점검했다.

한강 유역에는 소양강댐, 충주댐, 횡성댐 등 다목적 댐 3곳과 여주보, 이포보, 강천보 등 3개 다기능 보를 비롯해 18개 수자원 시설과 보가 있다. 한강 보 3곳은 2009년 11월 ~2012년 10월까지 건설, 준공된지 10년이 넘었다. 저수량은 가뭄 시에도 3400만톤 수준으로, 여주보 등 한강 3개 보가 하천 수위를 일정하게 유지해 보 인근 35개 취수장과 양수장에서는 연간 약 3억톤의 물을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지난 10일 경기도 이천시 SK하이닉스를 방문해 공업용수 취수현장과 초수순수 제조공정을 점검하고 있다. /환경부

취수한다. 여주보 상류 300m에 위치한 SK하이닉스 취수장이 있고, 매일 11만톤의 공업용수를 공급한다.

한 장관은 여주보를 둘러본 뒤 SK하이닉스 이천 본사를 방문한 자리에서 “보는 최근 가뭄과 관련해 유용한 국가 자산이고 인프라다”며 “여주보는 반도체 특히 SK하이닉스에 용수를 공급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중요성을 인지하고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살펴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4대강 보 활용에서

공업용수는 산업 육성 발전과 직결된다”면서 “현재 16개 보에서 공급할 수 있는 물이 6억3000만톤 정도인데 수위를 관리하면 더 많이 공급할 수도 있다”고 보 활용을 재차 강조했다.

한 장관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를 언급하면서 “2024년부터 하루 27만톤의 용수가 추가로 필요하다”며 “한강 여주보 구간에서 농업용수, 공업용수가 필요로 한 곳에 추가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수자원공사 등 관계기관에는 “대한민국이 반도체 강국이라는 위상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4대강 보를 통해 산업체에서 필요한 용수를 안정적으로 취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현장에서 만난 김형수 SK하이닉스 안전·보건·환경담당 부사장 “반도체 생산 위해 양질의 용수 확보 필요한데, 여주보를 통해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는다”며 “여주보 설치 전엔 물의 양에 변동성이 있었지만 최근엔 사업에 어려움이 없다”고 전했다.

한 장관은 이날 취재진에게 “올해 연

말까지 4대강 보 활용방안을 포함한 한강과 낙동강, 금강 유역 가뭄대책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앞서 호남지역 가뭄대책을 발표하며 영산강·섬진강에 위치한 승촌보와 죽산보를 ‘물그릇’처럼 쓰겠다면서 권역별 수요에 맞춰 4대강 보를 활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 장관은 “댐과 보, 하구둑을 연계해 홍수와 가뭄에 적극 대응하는 것”이라며 “영산강·섬진강 가뭄대책에 승촌보와 죽산보 활용을 넣은 것처럼 연말까지 나머지 한강, 낙동강, 금강 유역도 가뭄 대책을 만들고 보 활용 방안도 포함시키겠다”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들과 만나 “취임 이후 보를 보답해 활용하겠다. 과학적으로 활용하겠다. 주민 동의 없는 보 해체는 하지않겠다고 말씀드렸다”면서 “(전 정부에서)보 해체 결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면, 과학 기술에 기반한 결정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하도급대금 미지급 횡포… 레즐러 제재

계약서에 불공정 특약도 설정
공정위, 지급·재발방지 명령

중소 태양광 시공사인 레즐러가 하도급대금 일부를 주지 않고, 하도급 계약서에 불공정한 특약을 설정하는 등의 횡포를 부려 규제당국의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레즐러가 수급사업자에게 전기공사를 시공위탁한 후 하도급대금 2억8029만원과 지연이자 1351만2000원을 미지급한 행위와 하도급 계약서에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행위에 대해 지급명령과 함께 향후재발방지 명령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레즐러는 전기공사업과 태양광발전소 시공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

로, 2020년 9월과 2021년 5월 철원두루미 2차 태양광발전소 건설공사 중 전기공사 2건을 수급사업자에게 시공위탁했다.

수급사업자가 2021년 1월과 8월 각각 전기공사를 완료했지만, 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 2억8029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하도급대금 3억1041만원 중 1억2099만원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해 지급하면서 초과기간 263일에 대한 지연이자 1351만2000원을 주지 않았다.

레즐러는 또 이들 수급사업자와 전기공사를 위탁하면서 계약서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잔금 지급기일을 개발행위 준공 후 14일 이내로 약정하는 등 부당

한 특약을 설정했다.

태양광발전소의 전기공사는 수급사업자가 전기공사를 완료하면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사용전 검사를 통해 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 완료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사용전 검사결과 합격 판정을 받으면 레즐러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정상 수령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레즐러는 목적물 수령일인 사용전 검사일로부터 법정지급기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의 계약내용과 상관없이 준공검사를 기준으로 잔금 지급 기일을 약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박성호 소진공 이사장(가운데)이 SNS 기자단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소진공

소진공, SNS 기자단 발족… 백년가게 홍보

총 90명 10월까지 6개월간 활동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SNS 기자단을 발족하고 백년가게, 전통시장 등을 알리기 위해 나섰다.

소진공은 지난 10일 대전 전용교육장에서 발대식을 갖고 대국민 SNS 기자단 90명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고 11일 밝혔다. 대국민 SNS 기자단은 백년가게·백년소공인, 온누리상품권, 스마트공방 기술보급,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지원 사업 등에 관한 정책안내와 체험수기를 온라인으로 홍보·확산한다.

소진공은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3일까지 약 일주일간 공단 지원사업에 관심 있

는 대학생·일반인을 대상으로 신청접수를 받았다. 신청자 280명 가운데 SNS 활동이 활발하며 콘텐츠 제작경험이 있는 참여자 최종 90명을 선정했다.

선발한 기자단은 이달부터 10월까지 총 6개월 동안 ▲백년가게·백년소공인 소개·체험하기 ▲온누리상품권 이벤트 취재·사용하기 ▲스마트공방 사업소개·소상공인 디지털 전환스토리 취재 등을 직접 기획하고 공단 블로그 및 유튜브 등 공식채널에서 홍보하는 역할을 맡는다. /김승호 기자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청년창업사관학교 ‘글로벌 청년 창업가’ 키운다

중소벤처기업부, 비전 선포식 개최
영문명칭 ‘K-Unicorn Academy’ 발표

전국에 있는 청년창업사관학교가 글로벌 역량을 갖춘 유망 청년 창업자 양성기관으로 탈바꿈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세빛섬 플로팅아일랜드 컨벤션에서 청년창업사관학교가 ‘글로벌 역량을 갖춘 유망 청년 창업자 양성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는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비전 달성을 위해 우선 청년 창업자들이 해외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영문 신규 명칭으로 ‘K-Unicorn Academy’를 발표했다. 청년 창업사관학교의 유형을 고려해 글로벌 진출 지원 기능 및 스케일업 지원을 위한 투자유치 프

로그랩도 강화한다.

특히 이번 글로벌 비전 체계 수립과 관련해 문제점 파악부터 개선안 도출에 이르기까지 청년층(2030 자문단, 청년보좌역 등)이 핵심 역할을 수행했다.

청년 창업자 등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청년창업사관학교 1기(2011년도) 졸업생인 안성우 직방 대표를 초대 명예교장으로 위촉했다.

안성우 대표는 “청년창업사관학교 명예교장으로 위촉돼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청년 창업 및 현장 경험을 살려 청년창업사관학교가 글로벌 창업 메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청년창업사관학교는 현재 전국에 18곳이 있다. 이 가운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5곳을 직접 운영하며 나머지 13곳은

민간이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졸업기업이 후배 창업자의 성장을 도울 수 있도록 ‘(가칭)청창사 동문 펀드’ 조성도 추진한다. 우선 올해는 졸업기업 동문회 등과 협력해 졸업기업을 대상으로 펀드 조성과 관련한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창업교육은 창업기초분야에 대한 이론 중심 교육에서 신산업·인문·IR 분야 ‘특강형’ 교육, 동료 및 선배의 경험과 노하우 공유를 위한 ‘실전형’ 교육 중심으로 개편해나간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처음 생긴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뤄냈다”며 “앞으로도 청년 창업자들이 직방을 잇는 새로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bada@

중진공, 수출바우처 기업에 최대 1억 지원

23일까지 2차 참여기업 모집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이달 23일까지 2023년 수출바우처 사업 2차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11일 중진공에 따르면 ‘수출바우처 사업’은 정부지원금과 기업분담금으로 구성된 바우처를 통해 디자인개발, 홍보, 바이어 발굴, 해외인증 등 13가지 해외 마케팅 메뉴판에서 원하는 수행기

관(서비스 공급기관)을 선택해 수출지원 서비스를 활용하는 해외진출 마케팅 지원사업이다.

최종 선정된 기업에게는 전년도 수출 규모에 따라 3000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수출바우처를 지원한다. /김승호 기자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